

지리산프로젝트 2014 : 우주예술집

Jirisan Project 2014 : Universe·Art·Zip

2014. 10. 3. 금 - 11. 2. 일

성심원, 실상사, 삼화에코하우스



## 실상사 일원

실상사는 전북 남원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불교 문화의  
 숭한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천년고찰이다. 천년의 세월동안  
 호국사찰로 알려진 실상사는 현재까지도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 문명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대정신을 실천하는  
 지리산의 대표적인 사찰이다. 실상사에서는 천년 고찰의  
 공간과 문화유산들의 의미를 작가들이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들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일처럼 아파했으나  
 이제는 진영의 논리로 더 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세월호의 문제처럼 이분법적인 사고가 유행하고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는 이 시대에 공공적 예술 활동을  
 통해 '존중'이라는 가치를 모색하고, 좌우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된 대립적 구도를 뛰어넘는 예술적 시도들에 집중한다.  
 5-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되는 정기간의 프로젝트들이  
 많은 것도 특징 중 하나이며, 지리산에서 오랫동안  
 지내며 지리산의 이야기를 몸소 담아온 작가들의 참여와  
 인드라망대학, 실상사 작은학교, 산내초등학교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작업을 통해 지리산프로젝트가 커뮤니티 속으로  
 스며드는 첫걸음을 선보인다.

24  
 산내초등학교

22  
 원두미

21  
 청고

20  
 19 18  
 막사전

17  
 명부전

16  
 14 15  
 목탑지

종각

9 연소회당

4  
 천왕문

종무소

세민당

생태뒷간

8

극락전

7 6

5



13 한경두, 하늘이거나무이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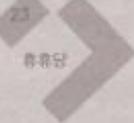
22 정세경, 사라진정원



25 김유한, 세월호 피도연스

25

해탈교  
1  
2  
3



23  
휴유당



16 장영철, 실상사기도소 416-304



9 정만연, 소리공림 2014년 5월 6일

## 1 돌장승

성신석조각연구회 Sungshin Stone Carving Association  
김병규 Kim Byungkyu, 김성복 Kim Sungbok, 김재호 Kim Jaeho, 김지영 Kim Jiyoung 노준진 No Junjin, 이호철 Lee Hochul 등 성신여대 교수와 강사, 대학원생으로 이뤄진 석조각가 그룹이 실상사에 머물며 작업했다. 실상사 안에는 탑전에서 가져온 긴 모양의 돌이 누워져 있다. 마치 머리 없는 장승의 몸처럼 느껴지는데 머리를 만들어 생명을 불어 넣고자 했다. 실상사로 들어오는 초입 해탈교 입구에 있는 공호급사육괴장군(公護金妙流鬼將軍, 금묘래) 가득한 락천을 보호하고 악귀를 쫓아내는 장군) 맞은편에 위치시켰다. 이 자리는 본래 장승이 있었던 자리로 홍수 때 사라진 것으로 전해진다.

## 2 뇌귀 BREAR

정만영 JUNG MAN-YOUNG

실상사로 가는 길에 있는 해탈교에 뇌와 귀를 합성한 이미지를 교량 위에 설치하고 교량 밑, 양쪽의 돌을 조금씩 움직여 불쑥 흐르는 소리를 조절한다. 작업의 시작은 '교량위에서 양쪽 귀로 각각 다르게 들어오는 소리가 뇌를 자극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해탈의 길도 어찌면 뇌의 작용에 있을지 모른다. BREAR은 Brain과 Ear의 합성어로 조어이다. 양쪽 뇌를 연결하는 뇌향과 실상사로 들어가는 교량(해탈교)이 연결되는 고리는 뇌와 인체와 환경과 우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는 계기이다. 하나의 장소에서 우주의 구조를 상상함으로써 해탈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작품이다.

## 3 지리산 천년의 꿈

성신석조각연구회 Sungshin Stone Carving Association  
돌에 새긴 생명평화경과 백대서원의 경한, 범종교 시민대중이 어머니 지리산의 마음을 담아 민족화해 평화통일 한반도 생명평화 공동체, 21세기 지구촌 생명평화공동체로 향해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제시하는 사상과 청신을 담았다.

## 4 가득함도 빛나고 비움도 빛나라

안상수 Ahn Sang-soo (feat. 김경찬)

기둥(柱)미다에 시구를 얹혀 걸었다는 뜻에서 주권이라 부르는데 좋은 글귀를 얹은 편자에 새겨 건다. 실상사 입구 천왕문 기둥에 '가득함도 빛나라 비움도 빛나라'라는 한글로 된 주권을 만든다. 가득함(홍만)과 비움(무소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 글귀는 실상사 노래에도 나오는 가사로 실상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한 것이다.

## 5 사심당프로젝트

김기라 Kira Kim

시간의 흐름은 높음과 낮음을 불러온다. 자연 법칙과도 같은 이 시간의 원리가 불교의 사상과 만나면 심함은 역전된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은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요, 당당함과 공고함을 가져온다. 이 같은 시간성과 수행을 집중한 <사심당프로젝트 10년동안>은 2014년 지리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형의 구조에서 찾는 예술형태의 수행과정이 천년 고찰 실상사를 기리는 작업으로 시작됐다. 사사로운 마음을 뜻해 흔히 쓰이는 사심(私心)이라는 단어와 음은 같으나 '사심당프로젝트'의 사심당(思審堂)은 생각 사(思) 자에 살필 심(審)자를 써 생각을 살피고 사상을 밝게, 환하게 하는 사색의 장소이자 종재 당당한 자연과 시간의 터를 의미하는 공간에서 출발한다. 사심(私心)을 갖고 들어섰더라도 사심(思審)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중의적 의미도 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10년 동안 원형 형태로 100그루의 나무를 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음에는 그 존재가 희미하던 빈터가 시간이 더할수록 나무가 서있는 곳, 숲이 우거진 곳으로 성장·변화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자연에 불과하던 공간은 시간성을 함축한 사유적 공간으로 성장한다. 10년 프로젝트가 종결 되더라도 '사심당프로젝트'는 끝난 게 아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또한 예술의 힘에 의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에 따라 사심당은 10년 그 이후에도 자생하며 유지될 수 있도록 고안됐다.

## 6 들꽃길

성신석조각연구회 Sungshin Stone Carving Association

한국 석조각의 전통을 형성한 불교조각의 단면을 현대 조각가들이 재해석한다. 극적인 안마당에 놓여있는 바닷돌에 만개하는 과정의 연꽃 무늬를 새겨 넣어 극락정토로 가는 꽃길(花遊)을 만든다. 한국 석조각의 전통을 이어받은 조각가 김성복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제작한 이 조각들은 향후 불교미술과 현대미술의 연계를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다.

## 7 광배프로젝트

김기라 Kira Kim

<광배(光背) 프로젝트 2014>는 지리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무형의 구조에서 찾는 예술형태 수행과정이 천년 고찰 실상사에서 얻어진 사유와 깨달음을 기리는 작업으로 시작됐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화한 광배(光背)는 깨달은 자의 빛이며 지혜와 권능, 성스러운 빛이다. 부처님이 발산하는 광배의 빛은 깨달음의 정신적 에너지이며 지혜이기에 구구절절한 설명과 설득 없이도 그 빛을 보고, 쬐는 것만으로 깨달음을 경험하고 지혜를 공유할 기회와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다. 불상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광배에 포함되는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의 형태는 원형, 타원형, 뾰족한 곡면 등으로 변화했고 그 안에 표현된 문양 또한 용, 연꽃, 화염문 등이 다채롭게 등장한다. 이에 현대

미술적 접근으로 광배를 해석해 실제로 빛을 발하는 설치작품을 고안했다. 유형의 불상에서 경험했던 광배와 달리 무형의 빛의 형태로 제작된 광배는 손으로 만지거나 질 수는 없지만 그 본질적 의미는 더욱 분명하다. 현대조각인 '광배프로젝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고 퇴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생각을 밝히고 사색하게 만든다. 빛의 속성을 활용한 현대적 광배의 빛은 강렬하게 인식돼 눈길을 사로잡는 동시에 응시할수록 점점 멀려 들어가 마침내 빛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는 수행자의 순간을 경험하게 유도한다.

## 8 백자만다라

정재철 Jeoung Jae Choul

'장소는 성장한다'. 긴 역사의 흔적을 간직한 채, 고스란히 자기 스스로의 기록을 나이테처럼 품고 있는 실상사의 한 작은 공간이(어쩌면 장소라기엔 이제는 희미해진 어떤 곳) 새로운 장소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진행되는 작업이다. 경내에 흩어져있는 자연석을 모아서, 좋은 그늘이 생길 듯한 나무 밑에 쉼터를 만들었다. 높은 자연석들은 탁자와 의자로 기능을 하길 바라지만 쓰는 사람들의 사용방식에 맡겨질 뿐이다. 그 공간이 슬플 때, 기쁠 때, 평온할 때, 쉬고, 놀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맺음을 계속하길 바란다. 작가는 그 장소(쉼터)의 지하에 국토정중앙 '양구'(양구 백자박물관 협조)에서 생산된 백자로 직접 만든 '백자만다라'를 정중히 모셨다. 이 소소한 일을 통해, 그 작은 공간이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을 품는 장소로 성장하는 단초로 만드는 것이 작가의 희망이다.

## 9 실상사의 소리풍경 2014년 5월, 6월

정만영 JUNG MAN-YOUNG

해우소(변소)로 사용하던 작은 건물을 참고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지리산프로젝트를 계기로 이곳을 회랑으로 바꿔 변소회랑으로 명명한다. 변소회랑의 첫 번째 전시는 실상사에서 채집한 소리풍경을 재생하는 정만영의 소리풍경이다.

## 10 천년 묵은 먼지

장유정 Yujung Chang

실상사 유적발굴지의 깊게 파낸 토층에서는 다양한 깊이에 박혀있는 강돌영미를 볼 수 있다. 역사란 결코 정확할 수 없다. 언제 누가 왜 이 돌을 어떤 상황에서 묻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작업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발굴 계획에 맞추어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고, 작가는 그 발굴 과정을 관찰하고 카메라로 차곡차곡 기록할 계획이다. 발굴 단계에 따라 다양한 층의 유적(고려, 조선, 현대)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천년 전의 먼지를 마시면서 역사적 근거와 학술적 가치를 배제한 채 작가의 상상속의 구조물을 그려갈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일 작품은 유적 발굴 초기단계를 담은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린 것이다. 사각형으로 파낸 토층 사이에 깨달기(빅마크)를 그려 넣어 시대별

첨터를 상징하였다.

### 11 인드라망

이선일 Sun-il Lee

실상사가 있는 산내연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경관을 자랑한다. 그 장소를 통하여 탄생한 수많은 만남과 인연을 상상하며 이선일은 풍경과 인연의 서사를 캔버스에 아크릴로 풀어냈다.

### 12 지리산프로젝트 전체 영상기록

김기환 Kim Kihwan + 실상사작은예술  
실상사작은학교팀(김혜원, 서해, 진진오)

지리산프로젝트의 전체를 담은 김기환의 영상기록과 함께 참여 작가의 인터뷰와 부분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기도 한 실상사작은학교팀의 영상기록을 함께 선보인다.

### 13 하늘이거나 땅이거나

천경우 KYUNGWOO CHUN

이 퍼포먼스, 설치 프로젝트는 지리산 실상사 인근의 마을 주민들과 작가가 협력하여 정기간 완성해가는 프로젝트이다. 이 안에는 인간이 타인을 통해 비추어 보는 내면의 상태를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물질화 시키고 자연의 섭리에 따라 변해가며 서서히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담겨 있다. 마음의 상태가 물질화, 시각화를 거쳐 다시 비물질화 되는 이 과정은 매우 작은 오브제(삿잔)와 마시는 물을 통해 시작되며, 이 평범한 요소들은 참여하는 사람들 각자를 대리하는(representation)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땅에 자리를 잡은 이 작은 물질들의 변화는 오랜 시간을 통해 공간과 마음에서 서서히 그 울림을 갖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타인', '상처'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에 관한 탐구이며 자연의 순고함과 시간을 통해 드러나는 상상 속의 공간에 관한 것이다. 1년에 2회의 퍼포먼스와 설치가 5년간 이루어지며 절의 경내 곳곳에 설치되어지는 첫잔들은 언젠가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채워지게 되고 서서히 땅의 일부가 되어간다. 모든 잔 아래에는 참가자들의 시간의 기록이 새겨지며 각자는 절 안에 두고 오는 잔과 내적인 연결고리를 갖게 된다. 하늘과 연결된 통로와도 같은 이 작은 잔의 수면은 계절의 변화, 밤과 낮, 하늘의 색에 따라 변하기도 하며 땅의 미생물, 곤충들의 숨겨져 되기도 한다.

### 14, 15 생명평화깃대, 빛304

안상수 Ahn Sang-soo (feat. 마고, 신민음)

실상사 목담지에는 생명평화깃대와 세월호 희생자를 상징하는 304개의 빛을 두어 어둠 밤을 밝힌다.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우리시대의 마음을 모으고, 그것을 담은 상징으로서의 생명평화후니 깃발을 만들어 깃대 위에 세웠다. 304개의 빛이 예도와 기억의 의미라면, 생명평화후니 깃대와

깃발은 기원과 희망의 의미를 담았다. 세월호 기도단은 그 뜻을 깨안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 16 실상사 기도소 416-304

장영철 JANG Young Chul

소원을 빌며 탐담어를 했을 실상사 목담지 옆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레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반외부공간 형식의 건축물. 야외에 있지만 기도를 할 수 있는 중앙부분은 바닥과 지붕으로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전함과 전이의 공간이다. 역설적으로 있는 듯 없는 듯 편안한 명상의 공간이지만 세월호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도록 304개의 대나무 부재를 기둥으로 사용한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 17 프로젝트 2014. 대한민국 봄

박재동 Park Jaedong, 노주환 Noh Juhwan, 배성미 Bae Sungmi, 김명윤 Kim Myoungyun, 김성수 Kim Seongsoo, 김소영 Kim Soyoung, 김시연 Kim Siyeon, 김연주 Kim Yunju, 김혜운 Kim Hyeoyoun, 박신하 Park Shinha, 박지수 Park Jisu, 추정 Choo Jeong

"2014. 대한민국 봄"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예술계의 여러 발걸음 가운데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세월호 100일 추모를 기점으로 소망과 치유의 방편으로서 한국 여인의 삶을 대표하는 바느질을 통해 희생자분들의 이름을 수놓아 천상의 문을 열 <하늘베>의 돛 만들기에서 시작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하나의 마음을 가진 여러 작가들의 손길이 더해지면서, 프로젝트의 화음은 풍성해져갔다. 이제 실상사에 울려 퍼질 화합의 하모니는 다음없는 "어머니산 지리산"과 "생명평화"의 메아리다.

### 18 무궁화프로젝트

강영민 Yong Mean Kang

천년 세월을 보내오면서 호국사할로 알려진 실상사에는 유독 일본과 얽힌 실화가 많이 전해진다. 지리적으로도 약사전의 약사여래불은 천왕봉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천왕봉 너머에는 일본의 후지산이 일직선상으로 놓여져 있다. 이런 사할의 애국 코드를 스님들과 강영민, 팜아트협동조합 작가, 일간베스트 회원, 무궁화사람협회 회원들이 함께 실상사 약사전 앞에 무궁화를 심는 퍼포먼스로 연결한다.

### 19 잡음상자, 약사전

석성석 SUK SUNG-SUK

실상사에서 수집한 이미지와 사운드들은 35mm 필름 변환과 편집 과정을 거쳐 4개의 노이즈 박스 속에 숨겨진 8개의 LCD액정과 스피커를 통해 재현된다. 약사전을 미디어적으로 화려하게 재구성하기 보다는 이 박스들은 실상사 약사전에 전해 내려오는 철물처럼 그 일부로 늘 있었던 듯이 그곳에 잠시 놓여진다.

## 삼화예코하우스 일원

하동군 삼화실마음의 예코하우스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예코하우스프로젝트는 강영민과 팍아트조합이 캠핑과 무궁화나무심기, 그림전시, 감따기농활, 마을벽화프로젝트 등을 펼치는 전방위의 공동체예술프로젝트이다. 예술가들이 비롯해, 언론인, 산악인, 음악인, 종교인 등과 함께 마을주민을 만나 마을공동체의 삶과 예술의 협업을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마을의 공유지인 옛학교터를 중심으로 예술적 소통을 만들어내는 자리이다.

## 5 마을벽화프로젝트

삼화예코하우스 앞 농협창고 벽에 팍아트조합 작가들과 일간베스트회원들이 함께 그리는 벽화. 주민들의 역사와 추억이 서린 옛 삼화초등학교 앞 농협창고에 현대사와 삼화실의 역사가 어우러진 벽화를 그린다.



삼화예코하우스

## 1 전국예술가 캠핑대회 : 우주, 예술, 캠핑

하동 삼화예코하우스 운동장과 이정마을 향토방 민박에서 열리는 캠프. 팍아트조합(강영민, 최병, 고재열, 박경호, 이민지, 임강섭, 변킴, 리나하예, 이버들이, 김태균, 임효진), 무궁화사랑(아강, 구정란), 대전 힐링콘서트(이상은, 조은주, 김성선), 쥬스컴퍼니(이한호), 모덕스님 등이 참가한다. 전국의 문화예술인들과 기획자들이 삼화예코하우스에 모여 10동의 캠프를 꾸리고 야영을 하며 삼화실과 지리산 문화부흥에 대한 토론을 한다. 무궁화 나무 심기, 오치근의 지리산 그림여행 전시관람, 마을기업 삼화실 최일봉 대표님의 삼화실 마을이야기, 모덕스님의 아솔반딧은 차 시음회, 오키리니스트 조은주의 힐링콘서트, 삼화실 둘째길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가진다.

## 2 무궁화나무심기

삼화예코하우스와 이정마을 일원에 무궁화를 심는 퍼포먼스. 지리산은 현대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으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3도가 만나는 곳이다. 이곳에 동서화합과 나라사랑을 대표하는 무궁화를 예술인들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심는다.

## 3 오치근의 지리산 그림여행 전시

삼화예코하우스 내 전시실에서 추진하는 이 전시는 지리산 일대의 자연과 삶을 토대로 그림책을 만들어 온 오치근 작가의 원화 20여점을 선보인다.

## 4 감따기농활

삼화실 일원에서 팍아트조합 작가들이 일간베스트회원들과 함께 지리산 하동군 삼화실 일대의 감을 따는 농가의 일손을 돕습니다. 컴퓨터 키보드 앞에만 있는 도심청년들에게 자연과 농업의 소중함을 체험하게 해 건전한 공동체를 느끼게 한다.



무궁화아트프로젝트

오치근의 지리산 그림여행 전시

삼화예코하우스

전국 예술가 캠핑 대회

농협창고 벽화

삼화교

삼화보건진료소

감따기 농활

무궁화아트프로젝트

이정마을

이정교

## 생명평화를 여는 우주예술집

지리산프로젝트는 개인과 공동체와 자연의 생명평화의 가치를 담아 우주를 품는 예술프로젝트이다. 우주(宇宙)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체이다. 우주는 그 자체로 자연이며, 그 자연의 일부인 인간의 문제이자, 인간 삶의 총체인 사회를 포괄한다. 따라서 우주란 물리적인 차원 너머의 가치에 다가가기 위한 물음의 단초이다. '만치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있다'는 말처럼, 개별적인 것(특징)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개별이 조화를 이루면 우주가 되고, 우주는 개별의 존재이유 하나하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가치를 존중한다. 따라서 지리산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생명평화의 가치는 '일신운화(一身運和), 통민운화(統民運和), 천지운화(天地運和)', 즉 인간과 사회와 자연의 에너지를 '일기운화(一氣運和)'로 꿰뚫어 보는 우주의 마음을 품고 있다. 지리산프로젝트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횡행하고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는 이 시대에 지리산에 기대어 생명평화의 가치를 배우기 위하여 우주예술을 사유하고 실천할 것이다.

지리산프로젝트는 예술적 소통을 특정예술, 융합예술, 서로예술로 재구조화하는 장이다. 지리산프로젝트는 다음의 세 가지 지향을 가진다. 1)의제와 장소를 고려하는 특정예술(specific art)이다. 그것은 지리산의 생명평화 가치가 매개하는 의제특정적 예술이며, 지리산과 지리산둘레길, 사찰, 수도원, 마을 등의 장소특정적 예술이다. 2)자연·사회·인간이 공존하는 융합예술(consilience art)이다. 인간과 예술의 융합(영성, 마음, 명상, 인간), 사회와 예술의 융합(둘레길과 마을과 공동체, 사회), 자연과 예술의 융합(산과 길, 숲과 들, 자연)이 그것이다. 3)상호성예 기반하는 서로예술(inter art)이다. 그것은 지역 사이(한국과 외국, 영남과 호남, 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사이의 교류)와 장르 사이(문학, 음악, 시각예술, 춤 등 예술 장르 사이의 교류)를 오가는 예술이다. 이를 통하여 지리산프로젝트는 생명평화가 갖는 지리산예술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리산둘레길 일원의 마을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예술을 추구한다. 우주예술집은 지리산프로젝트를 추동하는 가치의 총화이다.

지리산프로젝트는 전지구화의 편재화로 인해 인류사적 보편가치로 자리잡은 예술을 다시 각 지역마다의 독창적인 지역언어로 특정가치를 추구하는 지역적 실천의 장으로 되돌리고자 한다. 지리산프로젝트는 예술적 소통을 매개로 하는

지역화 전략의 장이다. 이제는 전지구적 보편성에 기대어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을 스스로 키우는 일을 멈추고, 전지구적으로 사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한다는 글로벌리즘의 실천불가능한 의제를 넘어서서, 지역적으로 사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지역주의 가치를 다시 들여다 보고, 나아가 지역과 지역 사이의 교류와 협력, 우애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상호지역주의 가치를 추구할 일이다. 지리산프로젝트는 우주적 관점에서 먼지 한 톨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지구와 지역,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넘어설 것이며, 전지구화시대의 대안으로서 지역화 전략을 실천하는 장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예술집'이라 부른다.

### ■ 개막행사

2014. 10. 3. 금, 성심원 야외무대

### ■ 공연

생명평화콘서트<야! 지리산>, 10. 3. 금. 19:30, 성심원 야외무대  
정태훈·박은옥 콘서트, 10. 4. 토. 17:30, 성심원 야외무대

### ■ 학술심포지엄

1. 생명평화와 지리산, 10. 3. 금. 15:00-18:00, 성심원대성당 /도법스님, 김호기, 김선정, 김준기, 윤병모, 최범, 이명원, 김규향, 김재환
2. 공동체과 예술, 10. 4. 토. 09:00-11:30, 성심원대성당 /슈양, 베르너 마이어, 최석기
3. 지리산과 예술, 10. 4(토) 14:00-18:00, 성심원대성당 /최태만, 홍지석, 안태호, 김지연, 수지행, 이상윤, 강영민, 양원모, 엄상용, 노재화, 최세현, 김준기

### ■ 지리산프로젝트 월레포럼

2014. 10. 11. 토. 15:00, 실상사  
2014. 11. 01. 토. 15:00, 삼화예코하우스